

머릿 말

맑게 개인 날, 부산에서 남쪽 바다를 바라보면 육안으로 대마도(對馬島)를 볼 수 있고, 또 대마도 남쪽에 가서 보면, 큐우슈우(九州)에서 얼마 안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키(壱岐) 섬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외부세계로 부터 무슨 치명적 이라고 부를수 있을만큼 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이 자신들만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었다. 이 오랜 기간에 걸친 고립된 생활은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문화가 아주 유별하며, 자기들 민족이 혈통적으로 아주 순수하다고 믿게끔 만들었다.

특히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부터는, 무엇이 일본인을 아주 독특한 민족으로 만들었으며, 무엇이 일본 문화를 아주 유별난 존재로 만들었을까 하고 스스로 묻고, 또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연구가, 일본 대중들이 신이 나서 즐기는 소일거리가 되었다. 금세기 초에 들어와,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의 부추김을 받아 일본 역사를, 특히 8세기 이전의 한일 관계에 관한 역사를 열심히 왜곡했다. 이같은 왜곡들은 일본의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한국 사람을 민족적으로 멸시 하게끔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역사학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한반도의 남반부는 4세기와 5세기에 걸쳐, 심지어는 3세기에 도 일본의 식민지였었고, 북반부는 아득한 옛날부터 중국에 의해 점령되어 왔었다고 믿게끔 만들었다.

일본서기(日本書紀)를 보면, 하타(秦) 씨족의 선조인 궁월군(弓月君)이, 오오진 16년(서기 405년)에, 120개 현(縣)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오오진(應神) 20년에는 야마토 아야(倭漢) 씨족의 조상인 아치노 오미(阿知使主)가 17개 현 사람들과 더불어 일본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하타와 야마토 아야 두 씨족은, 백제의 벼(部) 제도를 본따서 야마토(倭) 조정의 재정지출 기록이라든가 세금 징수와 같은 온갖 기술적인 일을 맡아 보게 되었고, 그 덕으로 야마토 황족(皇族)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유우라쿠(雄略) 6년(서기 463년)의 기록을 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 비단을 짜는 사람, 의복을 마르는 사람, 안장을 만드는 사람,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또 백제에서 대거 건너 왔다. 이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을, 오오진 때 이미 건너와 있던 (야마토 아야 씨족의) 기술자들과 구별하기 위해, 새로 건너온 이마키 아야(今來漢, 新漢)라고 불렀다. 인류학자 이시다(石田英一郎)는, 야마토(倭) 조정이 한국과 아무 관계도 없이 수립된 것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어도 좋으나, 그렇게 되면 오오진(應神)시대에 한반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 온 사유를 설명해 볼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서기를 읽어 보면, 백제의 왕실과 야마토(大和倭)의 황족이 가까운 친족 관계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¹ 백제 왕실과 야마토 황족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 본다면, 야마토 궁중에는 백제 왕실의 왕족 가운데 누군가가 거의 언제나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백제 아신왕(阿莘王: 재위 392-405년)의 태자는, 서기 397년부터 405년까지 오오진(應神)과 함께 야마토 궁중에서 살았다. 그는 405년 부왕(父王)이 사망하자 백제로 돌아가 그 뒤를 이어 전지왕(재위 405-420년)이 되었다. 오오진 39년에는 백제왕이 자기의 누이동생을 시녀 7명과 함께 오오진에게 보냈다. 닌토쿠(仁德) 때에는 백제왕의 손자 주군(酒君)이 야마토 궁중에 와서 매를 길들이고, 닌토쿠와 함

¹ 여기서 야마토라고 하는 것은, 4세기 말부터 8세기까지 궁궐과 수도가 있었던 나라(奈良)분지를 말한다. 나라는 기나이(畿内)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기나이는 황실의 직할 구역이라는 뜻으로, 그 속에 야마토(大和), 야마시로(山城), 가와치(河内), 이즈미(和泉), 셋쓰(攝津) 등, 다섯개의 구니(國—당시의 행정 구역)가 있었다. 야마토(大和)는 고오토쿠(孝德: 재위 645-654년) 때 까지만 해도 왜(倭)로 표기되고 “야마토”로 읽혀졌다.

께 사냥을 다니기도 했다. 또, 백제의 개로왕(蓋鹵王: 재위 455-475년)은 동생 곤지(昆支, 軍君)를 왜에 보내어 유우라쿠(雄略)를 돕게 했다. 서기 479년에 백제의 삼근왕(三斤王: 재위 477-479년)이 죽자, 이 곤지의 둘째 아들이 백제로 돌아 와서 동성왕(東城王: 재위 479-501년)이 되는데, 일본서기는 유우라쿠(雄略)가, 떠나는 곤지의 아들의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작별을 아쉬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가(嗟峨: 재위 809-823년)의 후원아래 서기 815년에 완성된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은, 야마토의 지배계급 1,182개 성씨를 기록하고 있다. 이 성씨록의 서문을 보면, 마히토(真人)가 황족 중에서도 으뜸 이므로(皇別中上氏), 수도 지역의 마히토 씨족들을 제1권의 첫머리에 기록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텐무(天武: 재위 672-686년)는 아마노 누나하라 오키(天渟中原瀛)의 마히토(真人)의 스메라미코토(天皇)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성씨록에 기록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모든 마히토 씨족을 백제왕족의 후손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서기 660년, 백제의 수도가 나당(羅唐)연합군에 함락된 후, 왜에서 돌아온 왕자 여풍장(餘豐璋)은, 복신(福信)과 함께 군사를 모아, 주유성(州柔, 周留城)에서 나당 연합군에 대항해 싸움을 계속했다. 야마토 조정은 이들을 지원 하고자 만여명의 군대를 보냈으나, 이들 왜군은 백촌강(白村江) 전투에서 전멸하고, 주유성은 당군에게 함락되고 만다. 일본서기는 이 때 야마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자 나라 사람들은 서로들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주유가 함락됐구나.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오늘로서 백제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구나.

이제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 곳을,

어찌 다시 찾아 볼 수 있을것인가!’(丘墓之所豈能復往)”²

일본의 고분시대(古墳時代) 분묘들의 구조적 특징과 매장물의 내용을 면밀히 검사해 본 동경대학의 예가미(江上波夫) 교수는, 4세기 말 대륙에서 침공해 온 기마민족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야마토 왜(大和倭)를 건설했다는 내용의 기마민족정복설(騎馬民族征服說)을 1948년에 발표했다. 예가미에 의하면, 그 기마의 정복집단은 북아시아의 유목민 이었는데, 한반도의 남쪽까지 내려왔다가 일본을 침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가미는 이런 가설을 발표 하면서, 중앙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목민들, 다시 말해서 스키타이, 흉노(匈奴), 투르크(突厥), 선비(鮮卑), 탁발 북위(拓跋北魏), 오환(烏桓) 몽골등의 역사를 장황하게 늘어 놓음으로서, 그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 기마민족이 부여와 고구려 사람들 같은, 즉 유목은 이차적이고 오히려 농경을 주로 하는 민족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예가미도 “한국”이라고 써야 할 자리에 “대륙” 또는 “중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일본인 사학자들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컬럼비아 대학의 레드야드(Gari Ledyard) 교수는, 4세기의 한국과 일본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사실(史實)에 입각하여, 수정된 기마민족정복설을 제시했다. 그의 가설은 예가미 교수

²스다 하치만 신사(偶田八幡神社)에 보존되어 있는 구리 거울(人物畫像鏡)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글이 새겨져 있다: “대왕년(大王年) 양의해(서기 503년)에, 사마(斯麻)는 장수(長壽)를 비는 마음으로 이시사가궁(意紫沙加宮)에 있는 남동생에게 주려고, 두사람을 시켜 백동 200환(兩)을 가지고 이 거울을 만들 것을 분부하셨다.” 백제 무녕왕능에서 발견된 지석(誌石)을 보면, 무녕왕(武寧王: 재위 501-523년)의 이름이 바로 사마(斯麻)였다. “남동생(男弟)”이라는 표현은, 위지(魏志)의 왜인전(倭人傳)에도 보인다. 즉, “히미코(卑彌乎)에게는 남동생(男弟)이 있어서 그녀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도와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서기는 백제신찬(百濟新撰)으로부터, 백제의 개로왕(蓋鹵王)이 형왕으로서의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 (以脩兄王之好) 서기 461년 곤지군(昆支君)을 유우라쿠(雄略)에게 보냈다는 기록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무녕왕은 개로왕의 아들이다. 따라서 남동생이라는 것은 케이타이(繼體: 서기 450-531년?) 이거나 아니면, 더 가능성이 크게는, 부레쯔(武烈: 서기 489-506년?)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의 주장에서 볼수 있었던 여러가지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대 착오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다. 레드야드 교수는 특히, 그 기마 민족이 바로 어디서 왔느냐 하는 점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지 말자고 주장한다. 레드야드 교수에 의하면, 일본을 정복한 기마민족이란 바로 부여(夫餘) 사람들 이라는 것이다.

에가미의 기마민족정복설은, 비록 일본의 다른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 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시대 직전의 일본에 나타난 야마토 왜의 기원을, 가장 분명하게 만들어 놓은 모델(Model)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위지(魏志)의 왜인전(倭人傳)은, 서기 239년에서 248년 사이에 큐우슈우(九州)에 파견된 중국 사신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기 280년에서 297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다. 위지(魏志)는, 큐우슈우 지방에 백개가 넘는 부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당시 일본의 분산된 정치구조를 서술하고 있다. 특기할 사실은, 위지에 의하면 당시에 일본에는 말(馬)이 없었다는 것이다.

에가미 교수의 기마민족정복설은, 대략 서기 375년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고분들에서 난데없이 마구(馬具)가 나타나고, 그것이 또 시기적으로 야마토 평원에 통일 국가가 형성되는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로 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 할수 있다. 그는 한반도 남쪽, 즉 미마나(任那, 伽耶)의 말을 탄 사람들이, 4세기 초에 진왕(辰王), 곧 미마키(美麻紀伊理毘古, 崇神)의 인솔 아래 바다를 건너 큐우슈우를 정복했으며, 그로부터 한두 세대쯤 지난 뒤, 진무(神武)의 인솔아래 기나이(畿內) 지역으로 진출하여 야마토 왜(大和倭)를 세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레드야드 교수는 에가미 교수의 기마민족정복설의 기본적인 틀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 기마인들이 가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부여(夫餘)의 전사(戰士)들이라고 주장한다. 부여는 서기 346년에 선비(鮮卑)족에 의해 멸망되었다. 서기 369년경, 살아 남은 부여인들의 일부가 만주로부터 한강 유역을 거쳐 미마나(任那)를 지나 큐우슈우로, 그리고 마침내는 야마토 지방으로 이주해 왔

다고 레드야드 교수는 주장한다. 그는 기마 민족의 일본 도착을 4세기 초에서 4세기 말로 수정함으로써, 에가미 교수의 주장에서 볼 수 있는 심각한 시대 착오적인 (고고학적)요소를 제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여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서 당시 한국의 역사적 사실들 뿐 아니라,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백제와 야마토 왜와의 관계에 대한 방대한 량의 사실(史實)들을 거의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이 책에서는 이제, 백제와 야마토 왜 와의 관계에 정면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좀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또 이제까지 발견된 여러가지 사실들과 부합하는 모델(Model)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의 이론에서는 에가미 교수의 기마 민족과 레드야드 교수의 부여 무사들이, 백제인으로 바뀐다. 이 책은 필자가 1988년에 펴낸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arly Period: Paekche and Yamato Wa* (고대 한일관계: 백제와 야마토 왜)의 개정 증보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Paekche of Korea and the Origin of Yamato Japan* (Seoul: Kudara International, 1994)의 국역판이다.

필자는 1991년 12월 19, 20 양일간, 동경 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비교: 역사와 현재(韓日の交流と比較—歴史と現在)”를 주제로한, 제1회 서울대학교-동경대학교 심포지움에서 이 책의 초고를 발표 하였다. 당시 토론자로서 논평을 해준 동경대학교 사료편찬소(史料編纂所)의 이시가미(石上英一) 교수에게 사의를 표한다. 특히 웰슬리언 대학교의 베스트(Jonathan W. Best) 교수와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의 권진균(權鎭均)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두 분은 이 책의 원고를 모두 읽어 보고, 유익한 논평과 건의를 해 주었다.

1994년 1월 1일 저자